

The cover features a central illustration of a female Blood Elf with glowing green eyes and blue facial markings, wearing an orange and green robe. To her left, a smaller, darker Blood Elf with yellow eyes is visible. The background is a lush, green, ethereal forest with glowing circular patterns. The title 'WORLD OF WARCRAFT MIDNIGHT' is at the top left, and the Korean title '끝이 찾아왔을 때의 적막' is at the bottom center. The author's name 'CATHERYNNE M. VALENTE' is at the bottom right.

WORLD  
OF  
WARCRAFT  
MIDNIGHT

끝이 찾아왔을  
때의 적막

CATHERYNNE M. VALENTE

스토리

CATHERYNNNE M. VALENTE

일러스트

SURFSIDE 3D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CHEUNG TAI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NASTASIYA NALYVAIKO,  
TAKAYUKI SHIMBO

감사한 분들

VALERIE STONE

번역

TK



Blizzard.com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씨앗

**하**가르 장로는 늘 용서란 씨앗이라고 말하곤 했다. 누군가가 심고, 다른 누군가가 거두는 것.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리고 모든 자연적 과정이 그러하듯,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돌봄이 필요했다. 억지로 밀어붙일 수도, 재촉할 수도 없는 일. 필요한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 빛과 물, 자양분. 거리. 겸손. 보상. 그렇지만 진흙에 씨앗을 눌러 심었다고 해서, 상대가 원치도 않는 앙상한 잡초를 가지고 뭘 해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었다.

하가르의 제자들은 그 말이 서로의 장난감을 훔친 일이나, 정숙해야 할 명상 시간에 몰래 빠져나간 걸 고자질한 일, 뜨거운 버섯을 2번이나 퍼 간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맞았다. 하지만 하가르 장로는 언제나 한 가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곤 했다.

오르웨냐는 이제 그걸 이해했다. 가르침 아래에 숨은 또 다른 가르침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씨앗을 심는다 한들, 오르웨냐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참회의 묘사귀를 새까맣게 태워버릴지언정 단 하나의 열매도 거두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조각을 늘어놓아도, 어떻게 배열해도, 어떤 모양으로 맞춰도, 오르웨나는 진심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빛이 풍성하고 밝았던 날에는, 오르웨나의 마음도 그러했던 날에는 그게 합당한 거래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아무튼 아마라크는 살아 있었으니까. 그녀를 미워하며 살아 있는 편이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 채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좋은 날에는 말이다.



오르웨나가 마르고 어수선한 어린 싹이었던 시절, 그녀가 안전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광활한 하란다르에서 사랑한 것은 딱 다섯 가지였다.

제자이자 손녀처럼 자신을 대해주던 하가르의 목소리.

긴 여정 끝에 마시는 맑은 물의 맛.

우리의 나무, 버섯이 반짝이는 텔드랏실의 뿌리. 어머니의 팔처럼 대지를 감싸 안고 솟아오른 그 거대한 뿌리들.

막 따기 직전의 덩굴 열매에서 풍기는 향기.

그리고 아마라크와 함께할 때의 기분. 오빠이자 친구이며, 모든 계획의 공범. 계획을 얼마나 많이 꾸미고 다녔는지.

그 밖의 모든 것은 오르웨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전부 방해물일 뿐이었다. 모험과 자신 사이를, 만족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랗고 못마땅한 바위들. 오르웨나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를 다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오르웨나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단 하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시도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데 훨씬 더 열심이었다. 이 상황은 소녀를 너무나 괴롭게 했고, 결국 오르웨나는 텔드랏실의 바위 같은 발가락에 맹세했다. 자신을 *더* 사랑해 주지 않는 존재는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때의 오르웨나는 너무 어렸기에, 그 맹세가 하라니르든, 루타니르든, 버섯전사든, 나무든, 그 누가 고통을 줘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여겼다.

그래서 그녀는 뭐든 하고 싶었고, 갖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시도해 보고 싶었다. 어딘가에 6번째로 사랑할 대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단 하나, 술카의 삶만큼은 예외였다. 그건 굳이 겪어보지 않아도 오르웨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술카는 무거운 명예를 짊어진 존재들이었다. 강력한 전사들. 은밀하고, 고립된 이들. 하지만 그건 갈망할 만한 힘도, 탐낼 만한 명예도 아니었다. 술카는 다른 모든 하라니르와 떨어져 알른의 균열 근처에 살며, 오직 동족을 위해 고립과 침묵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저주받은 암반과 골짜기에서 찢기고 뒤틀린 노래가 괴성을 지를 때, 균열 안으로 들어가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여신의 노래에서 스스로를 끊어냈다. 흥측한 존재들과 싸우는 와중에도 자기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균열에 거하는 부서진 악몽들이, 알른멀시라는 이름의 뒤틀린 흥물들이 경계를 넘어 하라니르 마을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란다르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산산이 부서져 이성을 상실한 음악에 정신을 잠식당해 미치지 않고, 괴물의 본진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였다.

입 밖에 내선 안 될 생각이었지만, 오르웨냐는 예전부터 술카가 거의 알른멀시의 한 갈래처럼 느껴졌다. 끝없는 고통 속에 뒤틀린, 노래를 잃어버린 하라니르의 변종들. 다만 스스로 뒤틀림을 택했을 뿐. 술카는 알른의 균열뿐 아니라, 자신들의 여신 알른하라와 그녀가 내린 모든 선물마저 거부했다. 희생이었지만, 동시에 분명한 거부였다.

그렇다. 오르웨냐도 맛보고 싶지 않은 건 명백히 있었다.

여신의 노래는 그녀가 사랑한 다섯 가지 안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을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자기 몸 안에서 뛰는 심장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고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삶의 노래였다. 자기 자신의 노래였다. 그것이 없으면, 남는 건 슬픈 고깃덩이에 불과했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은 사라지고 만다.

아마라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신의 노래처럼, 그는 늘 오르웨냐와 함께였다. 언제나 꽃이 만발하고 은은하게 밝혀진 하란다르의 세계에서 소년 아마라크와 소녀 오르웨냐는 어떤 힘으로도, 간청으로도, 뇌물로도 떼어놓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시도했다. 두 사람은 엮여 만든 바구니에 달린 두 개의 손잡이 같았고, 그 바구니는 틈만 나면 불이 붙었다. 거칠고, 말을 안 듣고, 어리석고, 야성적이었다. 얼마나 많은 하라니르가 주변에서 살고, 웃고, 잔치를 벌이고, 일하든 상관없었다. 모자이크 같은 텔드랏실의 거대한 뿌리와 덩굴이 말려 올라간 미로 같은 작은 세계는 온전히 두 사람만의 왕국이었다. 둘은 허드렛일을 피해 고대의 나무 못지않게 크고 장엄한 버섯 사이에 숨었고, 어린 시절의 시간처럼 작고 셀 수 없이 많은, 반짝이는 남보라색 포자와 말불버섯 들판을 헤집고 내달렸다. 어린 시절은 언제나 무한하게만 보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여신의 노래

깊은 곳에서, 둘이 함께 있을 때마다 오르웨냐를 뜻하는 선율과 아마라크를 뜻하는 화음이 엇박으로 어긋나며 겹쳐졌다. 그렇게 태어난 것은 새롭고, 아름답고, 달콤한 무언가였다. 하란다르라는 거대한 소리의 바다, 침묵 속에서 하나로 이어진 교향곡 속에 떠오른, 두 사람만의 노래였다.

자기 자신과 노래는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짙그린 얼굴로 투덜대기만 하던 어른들은 그저 투박한 고아와 좋은 집안의 훌륭한 아들이 *다르다*는 것만 보았다. 하라니르 사이에서 *다름이란 흔치 않았다*. 그래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장로도, 엄격한 뿌리감시관도 두 어린 존재의 다름이 단순히 허드렛일을 빼먹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을 흐르며 삶의 박자에 맞춰 잔잔하게 울리던 거룩한 사랑의 노래가, 아마라크와 오르웨냐 내면에서는 천 명의 합창단처럼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그들의 반대는 늘 어설피고 힘이 없었다. 그 누구도 정확히 말로 옮길 수 없었기에.

*왜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일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니?*

*왜 둘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니?*

*왜 둘이 붙어 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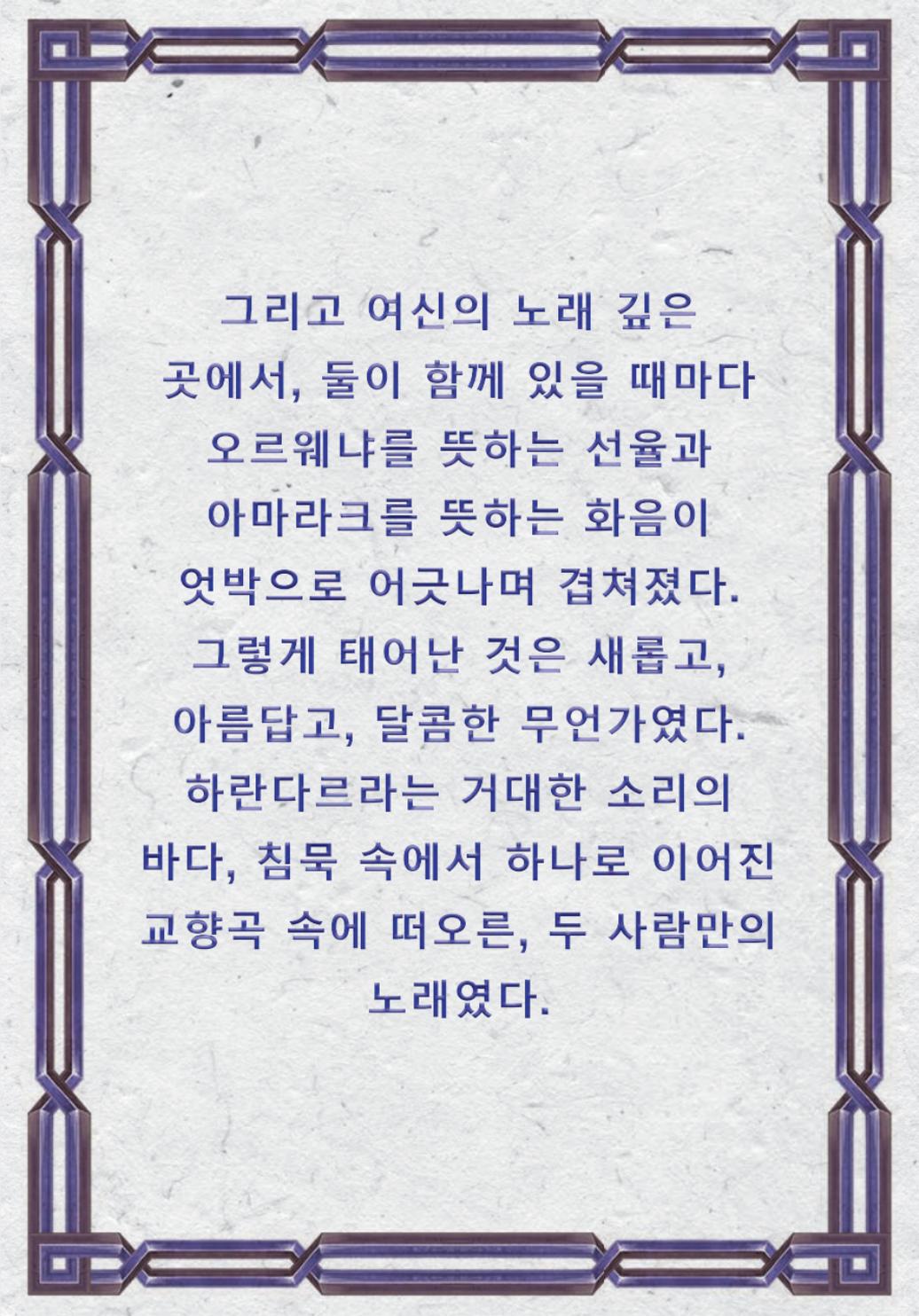
“결국 다 망가지고 말 거야.” 만화경처럼 빛나던 그 옛날, 루이아 장로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정원에 모여 수업을 받을 준비를 하는 어린 하라니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이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아마라크와 오르웨냐의 재능은 아니었다. “우리 방식에는 이유가 있어. 길을 벗어나면 고통을 부르는 법이야.”

“두고 보시지.” 하가르 장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길쭉한 귀 뒤쪽, 아직 아물지 않은 사마귀를 긁적였다. “초대라는 건 말이야, 제때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아예 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

루이아 장로가 거칠게 투덜거렸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옳았다는 게 증명될 거야. 잡초가 꽃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 기껏해야 더 큰 잡초가 될 뿐.”

하가르 장로는 그 대화를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꼬마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하가르는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걸 믿지 않았다. *우리 자신에 관한 대화는, 늦든 빠르든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오고, 없으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온다. 그렇다면 코에 묻은 흙처럼 솔직하고 분명하게 한 번에 말해 시간을 아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마라크는 동시에 발끈하며 자기도 반드시 꽃이 되겠다고 쏘아붙였고,



그리고 여신의 노래 깊은  
곳에서, 둘이 함께 있을 때마다  
오르웨냐를 뜻하는 선율과  
아마라크를 뜻하는 화음이  
엇박으로 어긋나며 겹쳐졌다.  
그렇게 태어난 것은 새롭고,  
아름답고, 달콤한 무언가였다.  
하란다르라는 거대한 소리의  
바다, 침묵 속에서 하나로 이어진  
교향곡 속에 떠오른, 두 사람만의  
노래였다.

오르웨냐는 냉소를 흘리며 말했다. 하란다르 역사상 가장 강인한 잡초가 되겠다고. 두고 보라고.

“게다가 말이야.” 아마라크가 콧방귀를 끼었다. “어른들이 하는 일 중에 대단한 게 뭐가 있는데?”

“일하고, 죽지.” 오르웨냐는 음울하게 중얼거리더니 하가르의 거처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게 오르웨냐가 확실히 알고 있던 어른들의 전부였다. 왜냐하면 그녀가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이 딱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고귀한 전투도 아니었고, 혈족을 지키다 쓰러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숨을 약간 들이마신 찰나가 전부였다. 소리도, 기척도 느낄 틈 없이 갑자기 쓰러진 거대한 뿌리가 그들을 깊숙이 물어버렸다.

아마라크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친구를 쫓아가며, 세상만사가 전부 네 얘기는 아니라고 소리쳤다. 하가르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늘 그녀를 따라 달렸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터였다. 아마라크가 따라잡자 오르웨냐는 짙은 웃으며 핵 돌아섰고, 조금 전의 어둠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모든 게 자기 얘기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아마라크의 팔을 툭툭 쳤고, دم으로 머리는 나쁘고 모양도 웃긴 귀를 가졌다는 사실도 시인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란 그런 법이다. 동심이란 그런 것이다.

하지만 아마라크와 오르웨냐는 다투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아마라크가 이긴 적은 없었다. 둘은 가능한 한 일을 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때나 앞으로나 죽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다른 하라니르 아이들은 가끔 존재를 인정해 줄 뿐이었다. 어른 하라니르들은 별로 흥미롭지 않았고, 그들의 규칙은 더더욱 그랬다. 두 아이는 함께 어린 시절이라는 긴 꿈을 질주했다. 아마라크가 몇 살 위라는 사실도 아무 차이가 없었다. 오르웨냐는 관대하게도, 앞서서 나이를 먹어버린 소중한 친구를 헐뜯지 않았다.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둘 중 누구라도 암전하게 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부드럽고 끈질기게 타이르는 말을 듣고 순순히 따를 줄 알았더라면, 분위기에 맞추고, 타협하고, 흘러가는 법을 배웠더라면 오르웨냐와 아마라크는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가르 장로는 말썽 하나 일으키지 않는, 착하고 순하고 아이들을 별로 쓸모 있게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가르는 남들이 아무리 달래도 뿌리내리지 못하는 묘목들을 말아 키우는 일을 조용한 사명으로 삼았다.

그러니 하가르의 제자들 사이에서 말썽꾸러기가 되려면, 아주 비범한 말썽꾸러기여야 했다.

하가르는 애썼다. 정말로. 하지만 이 둘을 암전히 만들기란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남들보다 먼저 같은 질문에 답하고, 매일 같은 덩이줄기와 감로를 먹고, *어른인 척 말다툼은 할 수 있지만 이길 만큼 어른은 아닌* 그 끝없는 황무지를 함께 건너고 있는 한은.

더 나쁜 건 둘이 *영리하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신의 노래가 마음속에서 최고조로 울리며 알려주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둘 다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한 덩굴에 붙은 두 잎사귀처럼 가까우면서도, 아마라크는 오르웨냐 앞에서 잘난 척을 멈추지 못했다. 오르웨냐 역시 나이 많은 소녀의 머리 위에서 놀려는 걸 멈추지 못했다. 그게 세 번째 문제였다. 그리고 네 번째이기도 했다.

한데 다섯 번째 문제는? 아무리 강한 전사라도, 제아무리 빛나는 방패와 강력한 검을 들었다 해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 둘이 비밀을 공유하면, 어른들이 그럴듯하고 안전하고 분별 있다는 생각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마라크와 오르웨냐의 비밀은 컸다. 지독하게 달콤한 비밀이었다. 두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또 *너무* 달콤했다. 최소한 *네 손은 필요했다*.

“아마라크.” 하가르가 통통한 볼을 가진 작은 하난에게 계속 말대꾸하면 혀를 그대로 쪽 뽑아 낚시바늘에 걸어 미끼로 쓰겠다고 말하고 있을 때, 오르웨냐가 속삭였다. “공공이 생각해 보면 말이야, 선조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는 하가르의 말을 듣는 건 *낭비야*. 저 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잖아*.”

“쉿.” 아마라크가 쏘아붙였다. “너 헛바닥 뽐히고 싶어?”

오르웨냐는 그의 눈에서 그걸 읽을 수 있었다. 하가르 장로가 정말로 혀와 낚시바늘 이야기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하가르는 키도 *아주* 크고, 힘도 세고, 무엇보다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라크는 늘 오르웨냐보다 생각을 한 박자 더 오래 했다. 조금 더 불안해했고, 조금 덜 확신했다.

하지만 오르웨냐는 하가르 장로의 허풍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만큼은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를 하가르 장로라 불렀지만, 오르웨냐는 어쩌면 그녀의 다른 얼굴을 아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가르는 할머니와도 같았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런 건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오르웨냐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오르웨냐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하가르 장로에게 아이의 흔들리는 허를 머리에서 마법처럼 떼어낼 힘이 있었다면, 진작 자신에게 써먹었을 것이다. 명절마다 두 번씩, 혀 모양이 조금이라도 우스워 보이면 한 번 더.

오르웨냐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마라크가 년 절대 못한다고 우기는 것이었고, 아마라크를 단숨에 움직이게 하는 지름길은 오르웨냐가 '너처럼 작은 애한테는 너무 위험해'라고 놀리는 것이었다. 둘은 그걸 놀이처럼 즐겼다. 특히 한쪽이 상대의 열망이 타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밑바닥에 남은 두려움을 혼자 감당할 용기는 아직 나지 않을 때면 말이다.

아마라크는 그걸 알고 있었다. 항상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오르웨냐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저 노는 거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버섯처럼 굴지 마.” 그녀가 쏘아붙였다. “식사 끝나고 빠져나가자. 뱀 해골처럼 생긴 뿌리 뒤에 숨어. 열매는 최대한 많이 챙기고, 맑은 물 한 병, 가지치기 가위도 가져와. 네이레이아가 딸꾹질 한 번 안 하고 전부 쓸어 담기 전에 살구버섯도 좀 슬쩍하고.”

“넌 뭘 가져올 건데?”

“용기요, 겁쟁이 대장님.” 하라니르 소녀가 속삭이며 눈을 찡긍하더니, 능청을 떨었다. “누가 집에 두고 온 것 같길래.”

아마라크의 어린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그래?” 그가 나직이 말했다.

오르웨냐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건 그때 한 번뿐이었어.” 오르웨냐가 중얼거렸다. “아니, 두 번. 어쨌든 다시는 널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됐어.”

오르웨냐는 언제까지고 작게 남아 있지 않을 터였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잡초든 꽃이든, 그녀는 덜 마르고 덜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다. 크고 잔잔한 기쁨을, 낯설고 사소한 즐거움을 솔하게 겪으리라. 그리고 여신이 마지막 날이라도 다시 하나를 고르라 묻는다면, 오르웨냐는 논리를 넘어 사랑하는 손을 붙잡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을 등지고,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무지개처럼 빛나며, 뜨겁고, 날이 선 기쁨에 뛰어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고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오르웨냐가 말한 건 지상이었다. 오래전 그들의 종족이 살았던 곳, 여신의

크고 잔잔한 기쁨을, 낮설고  
사소한 즐거움을 솔하게  
겪으리라. 그리고 여신이  
마지막 날에라도 다시 하나를  
고르라 묻는다면, 오르웨냐는  
논리를 넘어 사랑하는 손을  
붙잡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을 등지고,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무지개처럼 빛나며, 뜨겁고,  
날이 선 기쁨에 뛰어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고르지 못할  
것이다.

노래를 따라 이곳으로 오기 전의 땅. 그리고 그곳으로 닿을 수 있는 마법이 있다는 걸 오르웨냐는 알아냈다.

하지만 지상은 금지된 장소였다. 어떤 하라니르도 갈 수 없는 곳이었다. 하물며 무릎까진 아이 둘에게는 더더욱. 오르웨냐가 텔드랏실의 거대한 뿌리 사이에서 마법을 일으키자, 덩굴과 뿌리가 땅에서 솟아올라 서로 엉키며 벽처럼 이어졌다.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황금빛이 섞이며 커다랗게 엮였다. 그렇게 차원문이 열렸고, 둘이 발을 들이자 땅은 위로, 더 위로 솟아오르며 그들의 세계에서 멀어져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어졌다.

“오르웨냐! 들려?”

“뭐가?”

“잘 들어봐!”

“*이미* 집중하고 있거든, 아마라크, 이 빈 껍데기야. 대체 뭘 들으라는 건데?”

“그분이야. *그분!* 여신의 노래!”

“그건 항상 들려. 식상한 소리 마.”

“이번엔 엄청 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까지 크게 들린 적은! 게다가 너무 이상해. 너무 슬프고, 복잡해. 알른하라께서 차원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를.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오르웨냐는 어깨를 비틀며 몸을 낮추고 목을 더 내밀었다. 아마라크는 씨익 웃으며 등을 활처럼 젖히고, 어둠 속에서 발가락을 짝 펼쳤다. 당시의 두 사람은 자신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가고 있었다. 너무 큰 일이나 무서운 일, 거칠거나 정신 나간 짓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면?

아, 참고로 작은 것이라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스리는 왕국이었다.

아마라크가 오르웨냐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도 힘껏 쥐어 답했다. 두 번 손아귀를 맞잡은 후, 두 아이는 사라졌다.

그리고 다른 세계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눈빛이 오가는 순간, 형태가 바뀌었다. 날아오르는 박쥐가 되어. 킬킬대며 가죽처럼 질긴 날개와 통통한 배를 흔들고, 서로 부딪히면서 기량을 뽐내며, 빛을 향해 급강하하고 춤추듯 치솟았다.

빛. 진짜 빛. 요람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자신들을 품어주던, 아름답고 은은한 색유리 같은 어스름이 아니었다. 빛이었다. 사방에 가득한 빛. 너무 단단하고 눈 부셔서 어린 눈의 동공을 밀어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채 어지러운 구름 속으로 휘청거리며 내던져졌다.

구름. 아마라크도 오르웨냐도 그 단어를 뜨거운 스투에서 피어오르는 김이나, 장로의 담뱃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말고는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시야가 조금씩 돌아오자, 말도 안 되게 푸르고, 말도 안 되게 찬란하며,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하늘을 느릿느릿 흘러가는 크고 하얀 덩어리들을 부르기에 그 말이 꼭 맞아 보였다.

하늘. 이 단어 역시 하가르 장로의 이야기나, 신성한 동굴에 그려진 그림으로만 알던 것이었다.

여신의 노래는 여전히 그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웅웅거리고, 뛰고, 두드리고, 한숨 쉬며, 여전히 요람의 빛과 아래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 조용히 자라나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여신은 새로운 것을 노래했다. 이 낮은 영역에서 울려 퍼지는, 뜨겁고 빠른 노란색과 파란색의 노래를. 새로운 선율을. *위로, 위로.*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위로 가는 것만이 모든 것을 마땅한 자리에 놓는 길이라고. 위로 가라, 내 아이들아. 위로 가거라.*

그래, 뿌릿길의 반대편에는 분명 다른 장소가 있었다. 하란다르와는 조금도 닮지 않은 곳. 얽힌 뿌리의 광채가 아니라, 하늘에서 타오르는 불덩이가 빛을 내리쬐는 근원인 곳. 옛 전설 속 이야기 그대로였다. 노래와 시에 담기지 않은 이질적인 색채가 너무도 강렬해 눈을 태워, 몇 시간이고 찢어진 듯한 잔상을 남기고, 소리는 귀를 육신거리게 만들었다. 그 소리들은 때로 천둥이었고, 때로는 발굽 소리였으며, 때로는 새의 노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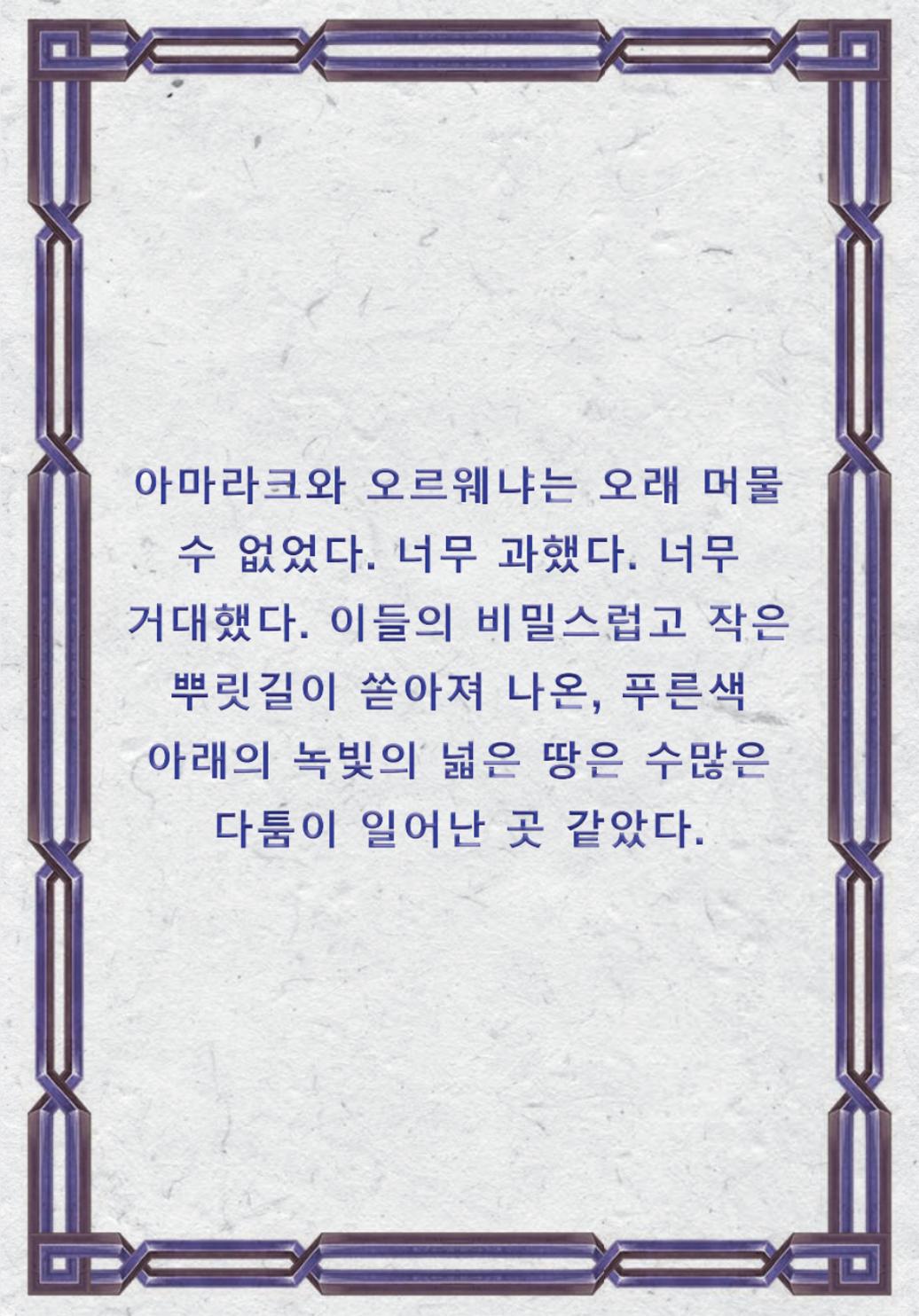
때로는 쇠붙이가 쇠붙이를 물어뜯는 소리였다.

때로는 비명이었다.

아마라크와 오르웨냐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너무 과했다. 너무 거대했다. 이들의 비밀스럽고 작은 뿌릿길이 쏟아져 나온, 푸른색 아래의 녹빛의 넓은 땅은 수많은 다툼이 일어난 곳 같았다. 거대한 야수들이 평원을 질주하고, 그 위에는 또 다른 거대한 야수들이 올라타 은색과 흰색이 섞인 가지를 휘둘렀다. 끓어오르는 빛 속에서 번뜩이며, 야수들이 충돌할 때마다 끔찍한 쇳소리를 내질렀다. 아이들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외치면서 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은.....

*아제로스! 아제로스를 위하여!*

들은 최대한 오래 박쥐의 모습을 유지했다. 변신을 풀기엔 너무 무서웠다. 하늘을 나는 즐거움에 취해 있었다. 영영 *돌아가지* 못할까 봐 무서웠다. 탈출했다는



아마라크와 오르웨나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너무 과했다. 너무  
거대했다. 이들의 비밀스럽고 작은  
뿌릿길이 쏟아져 나온, 푸른색  
아래의 녹빛의 넓은 땅은 수많은  
다툼이 일어난 곳 같았다.

기쁨에 들떠 있었다. 변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둘은 급강하로 차원문을 통과해 아래로, 아래로,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상상처럼 안전하지는 않았다.



## 대지

아제로스를 보고 난 뒤에, 누가 다시 명상과 조용한 식사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라크와 오르웨냐는 그러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점점 더 자주 지상에서의 모험을 감행했고, 허락되지 않은 장소들로 향했다. 그러다 보니 지하 세계에는 새롭거나 흥미로운 것이 거의 남지 않았다. 한 곳을 제외하고.

안개의 골짜기는 아마라크와 오르웨냐에게도 익숙한 곳이었다. 하라니르가 순찰하고 사냥하며, 인접한 균열에서 빠져나온 알른멀시가 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광활한 대지였다. 강인하고 혹독한 삶을 사는 이들은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쉬기도 했고, 상처를 꿰매고, 고된 하루를 마친 뒤 잔치를 벌이며, 잃어버린 동료들을 위해 술을 들이켰다. 자신들이 흘린 피와, 그보다 더 소중한 여기는 피로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굴러다니듯 거칠고 제멋대로인 하라니르 아이들에게 그곳은 전혀 달랐다. 안개의 골짜기는 거대하고, 무섭고, 짜릿하고, 중요하며, 현혹적이고, 끝없이 손짓하는 장소였다. 시골벽적인 대도시처럼 느껴졌다. 꽃빛과 안개가 얽혀 순식간에 길을 잃게 만들고, 지혜와 속도가 있어야만 다시 찾을 수 있는 미로. 아이가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곳.

*날 만나러 와. 안개 속에서 만나자.*

하지만 균열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 가운데, 자라나는 존재에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으로 관심이 향했을 때, 아이들은 먼저 소굴을 가로질렀다. 숨어 다니고, 속삭이며 흥정하고, 몰래 움직이고, 초록빛 절벽과 보랏빛 그림자 사이에서 귀를 기울였다. 뱀처럼 휘감긴 새까만 뿌리와 은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안개로 이어지는 동굴 입구 아래에서. 그러나 숨고, 흥정하고, 몰래 다니다 보면, 가끔은 어른이 될 준비가 되기도 전에, 어른의 시간이 먼저 찾아오기도 한다.

균열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알른멀시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괴물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부서졌거나 뒤틀린 수준을 넘어선다.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알른의 균열에서 찾아온, 기어다니는 악몽들.

존재해선 안 되는 몸. 있어선 안 될 육신. 절대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구조가 억지로 뭉쳐, 끝없는 고통만을 만들어내는 집합체들이다. 폐가 위장으로 이어지고, 발톱과 이빨, 수천 개의 악의 어린 눈을 달고 터져 나오는 꽃과 열매. 미노타우로스의 근육을 떠받치는 나비의 뼈. 오직 피만 흘러야 할 혈떡이는 마른 혈관 속으로 바람과 불, 녹색 수액을 퍼붓는 심장. 스스로를 혐오하는 살점. 공기를 삼키며 숨 쉬되, 들이마시는 것은 오직 고통뿐인 존재들. 그리고 그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굶주려 있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안고 있었다.

대부분은 며칠이나 몇 주 안에 죽는다.

살아남는 것들은 더 끔찍하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탈출에 성공한다.

안개 속에서 놀며 아마라크에게 자기를 찾아보라 도발하던 중, 오르웨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달려가 버렸다. 안개는 거리도, 깊이도, 위험도 가린다.

회색 속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듯 튀어나왔다. 분노 어린 포효이자 쇠소리 섞인 비명. 불길하고, 하라니르의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소리. 오르웨냐는 포자가 터지는 흙바닥 위에서 급히 멈춰 섰다. 그 소리를 먼저 자기 귀로 들은 걸까? 아니면 여신의 노래 속에서 갑자기 일그러진 불협화음으로 느낀 걸까. 절대 맞닿아서는 안 될 음들이 서로를 갈아대는, 부서진 여신의 피조물의 작은 일부가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비명.

“아마라크!” 오르웨냐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녀는 지금껏 진정으로 혼자인 적이 없었다. 하가르도, 마을도, 사람들도 늘 가까이에 있었다. 하라니르 사회에서는 고아조차 완전한 혼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소굴 위에 걸려 반짝이던 꽃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회색뿐이었다. 그리고 그 회색은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라크의 이름을 부르며 절박하게 대답을 갈구하던 오르웨냐는 내달리던 중 발뒤꿈치에 닿는 숨결을 느꼈다. 오르고, 변신하고, 다시 축복받은 어둠 속으로 기어 내려오니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 깐 뒤로 입에 넣은 것이라곤 없드시피 했으니까. 오르웨냐는 끈적이는 안개 속에서, 바위 위로 솟아오른 굵어진 뿌리와

부딪쳤다. 단단하고, 곧고, 딱딱한..... 하지만 아니었다. 뿌리가 아니라 아마라크였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오르웨냐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잠깐 동안은 안개와 그 안에서 따라오는 무언가를 따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언제나 그래왔듯, 둘이서 길을 찾아 빠져나가, 현실로 돌아가고, 아제로스라는 어리석은 환상에서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이든 간에. 하지만 알른멀시는 진짜 육체가 없다. 알른멀시는 발로 걷고, 땅에 얽매이고, 관성에 따르며, 육신에 공기와 혈액이 흐른다는 법칙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숨결처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아마라크는 빛 속에서 눈먼 박쥐처럼 오르웨냐를 끌고 달렸다. 하지만 오르웨냐는 더 어렸다. 다리는 조금 더 짧았고, 폐는 조금 더 작았다. 그리고 공포는 달리며 느끼는 통증보다 훨씬 컸다.

골짜기에서 그들을 찾아낸 것은 그리 거대한 존재는 아니었다. 훗날 둘 다 인정하리라. 그들 역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굵주린, 존재해선 안 될 야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둘은 아이였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때였다.

그것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꿈보다도 빨랐다.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마라크의 발뒤꿈치를 입에 물었다. 곧이어 종아리를. 그리고 그 순간, 여신의 노래가 순수한 광기 어린 날카로운 아귀에 들어간 그 순간 오르웨냐의 눈에 비친 것은, 들고양이보다 조금 큰 야생의 짐승이 아니었다. 저주받은 일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고기 냄새를 맡은 굶주린 짐승도 아니었다.

그녀가 본 것은 거인이었다. 살덩이의 장미 속에서 길게 자라난, 바늘 같은 이빨이 뒤엉켜 꿈틀거리는 거대한 덩어리. 기이한 각도로 꺾인 매끈한 몸을 따라 번들거리는 광채가 흐르고, 부서진 척추 틈에서 발톱이 파고들 듯 솟아 나와 아마라크의 정강이를 붙잡으려 허우적댔다. 마치 눈꺼풀로 걷는 법을 배우려 애쓰는 아이처럼 어설피고 집요했다. 오르웨냐는 그 안에서, 동쪽을 향해 다가오던 죽음을 보았다. 형태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굶주림을 얻은 죽음이 마침내 절대 잃어선 안 될 사람을 향해 온 것이었다.

알른멀시가 울부짖었다. 아마라크도 비명을 토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여신의 노래는 울며 갈라졌다.

그리고 오르웨냐는 *얼어붙었다*. 아아, 이 수치는 평생 잊지 못하리라. 용감한 소녀는 얼어붙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마라크가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었다.



뒤틀리고 요동치는 괴물의 입이자 얼굴이 아마라크의 발을 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깊은 곳에서 실망이 증처럼 울렸다.

아마라크는 비명을 멈췄다. 눈에 깃들었던 짓궂고 아름다운 호박색 빛은 사라졌다. 그는 덤불 속 흙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제야 진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몸이 들썩이는 흐느낌이었다. 친구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오르웨냐의 용기가 천하에 드러났는데, 수업을 피하려 늘어놓던 허풍과 자랑에 불과했다. 오르웨냐는 돌처럼 굳은 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아마라크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진실이, 진정한 진실이.

*자신과 파멸 사이에 오르웨냐밖에 없다면,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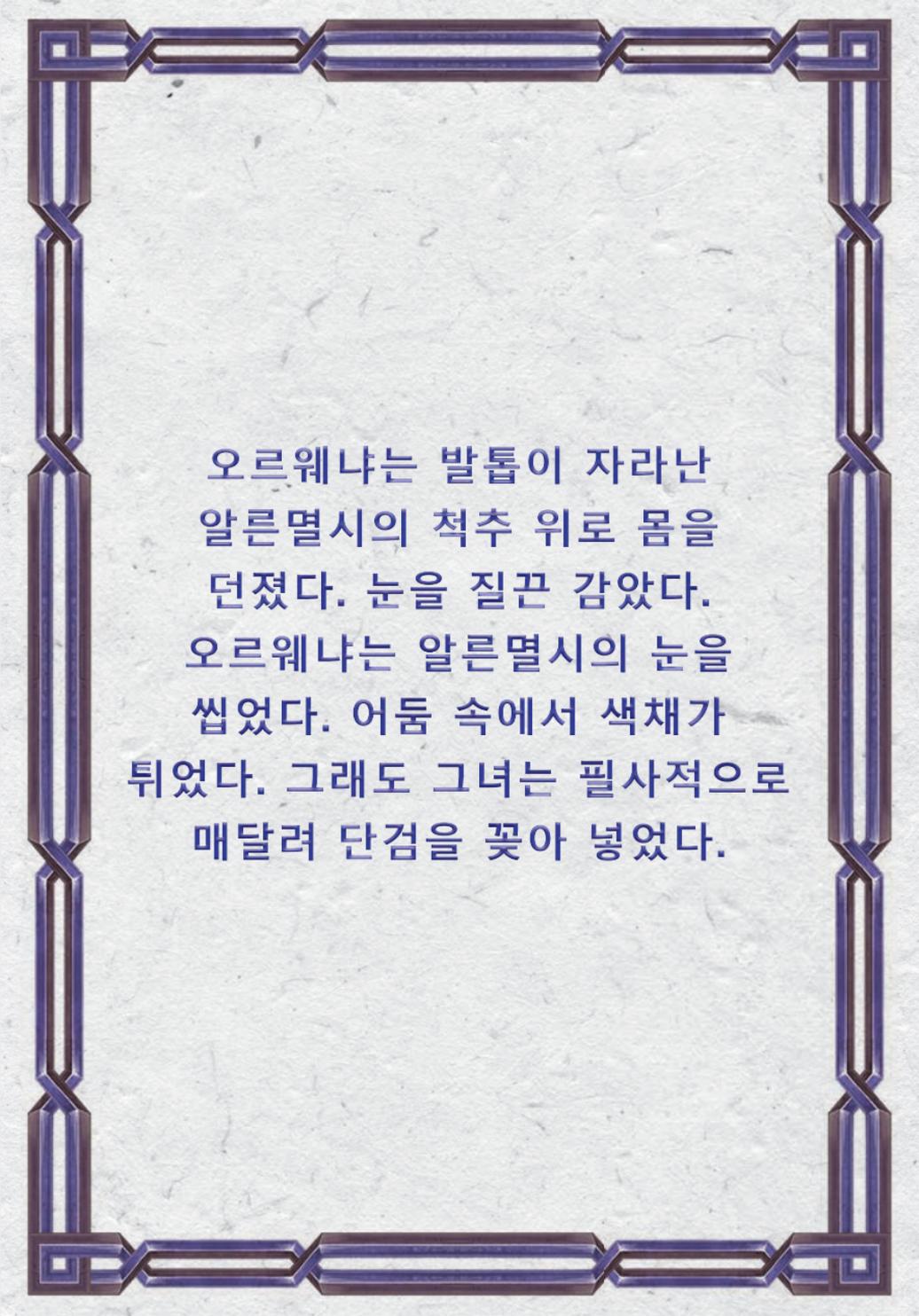
야수는 포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을 감고 신음하듯 소리를 냈다. 아마라크의 피를 삼키며 느끼는, 쾌락에 젖어서. 비명은 오르웨냐를 다시 악몽 속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침묵이 굳어버린 오르웨냐를 깨웠다.

오르웨냐는 발톱이 자라난 알른멀시의 척추 위로 몸을 던졌다. 눈을 질끈 감았다. 오르웨냐는 알른멀시의 눈을 씹었다. 어둠 속에서 색채가 튀었다. 그래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달려 단검을 꽂아 넣었다. 놈은 발버둥 쳤고, 이빨을 들이댔고, 침을 뿜었으며, 난폭하게 활궤었다. 그렇지만 어깨뼈 사이의 지점은 어느 생물에게나 급소였다. 오르웨냐는 괴물의 몸을 갈라냈다. 무릎 사이에서 죽어가는 감각이 전해졌다. 놈이 느릿해지더니, 킁킁 소리를 냈다. 오르웨냐는 알른멀시가 포기하는 순간을 느꼈고, 그때 차갑고 푸른 잉크처럼 죽음의 노래가 여신의 노래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들었다.

아마라크와 오르웨냐는 안개 속에서 서로 몸을 웅크린 채,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떨며 버텼다.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오르웨냐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네가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마라크는 너무 작고 위험은 너무 컸다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위험이 충분히 작아졌으니,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를 꼭 붙들었다. 빼기풀과 진흙으로 상처를 감쌌고, 둘 다 진작 열심히 배워야 했던 주문들을 낮게



오르웨냐는 발톱이 자라난  
알른멸시의 척추 위로 몸을  
던졌다. 눈을 질끈 감았다.  
오르웨냐는 알른멸시의 눈을  
씹었다. 어둠 속에서 색채가  
튀었다. 그래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달려 단검을 꽂아 넣었다.

속삭였다. 조금만 더 진지했다면. 조금만 더 나왔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처럼, 다른 하라니르들을 더 닮았더라면.

마을에 돌아와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진실만을 말했다. 야생에서 알른멀시와 마주쳤고, 아마라크가 물렸으며, 오르웨냐가 그것을 죽였다고 말했다. 하가르는 돌을 칭찬했지만, 그 따뜻함은 둘 다 느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고통이 아닌 것들로. 그 야수 자체로, 어떻게 안개의 골짜기 깊숙이, 균열을 벗어나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로. 그런 괴물로부터 하라니르를 지키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술카는 늘 적었지만, 충분한 수였다. 균열 경계를 지키는 이들이 반드시 막아내야 했다.

토론이 이어지는 사이, 아마라크와 오르웨냐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자신들이 화제가 되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잠이 필요했다. 피로와 수치 속에서 장로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힘도 없었다.

하지만 피가 그것을 위해 울부짖었음에도, 오르웨냐는 쉬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라크의 방으로 갔다. 아마라크는 오르웨냐에게 마음을 닫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침상 끝에 앉아, 봉대로 감긴 아마라크의 발목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관심을 기다리는 작은 동물처럼.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오르웨냐가 말했다. “돌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는 물이 될게. 기다릴 줄 아니까.”

오르웨냐는 푸른빛이 감도는 금속 앞으로 감싼 작은 선물을 아마라크의 손 옆에 내려놓았다. “부서질 때가 오면, 그때 부서져. 나는 언제나 널 찾으러 올 거야. 여신의 노래와 내 푸른 영혼을 걸고 맹세해.”



다음 날 아침 명상 시간, 오르웨냐는 아마라크의 튜닉 주름 사이에서 자신의 사과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지상에서 처음 본 땅을 덮고 있던, 단단한 검은 돌을 거칠게 깎아 만든 아물렛이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의 유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오르웨냐는 괴물의 숨통을 끊은 칼로 문양을 새기고, 주술사에게서 훔친 안료와 자신의 피로 흠을 물들었다. 단순한 형태였다. 고향을 떠나 아제로스라는 곳으로 이어진 채, 빛을 발하던 차원문의 형태였다.

그럼에도 그 뒤로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 거리감은

다른 아이들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린 하난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했다. 예전처럼, 늘 그랬듯이, 탁자 아래에서 손을 맞잡게 하려는 몸짓이었다. 하난은 너무 작았다. 가장 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마라크와 오르웨냐의 손을 부러진 연장을 잇듯이 붙여 놓고, 눈물이 그렇그렇 멧힌 커다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아마라크와 오르웨냐는 서로 엮인 두 덩굴보다도 더 가까워야 했다. 그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의 고통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난의 고통은 아니었다. 익숙한 동작으로 손가락을 엮었고, 하난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난의 얼굴은 환해졌다. 둘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다시 빛이 돌아올 터였다.

그때의 오르웨냐는 알지 못했다.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던 그 며칠 동안, 아마라크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멈췄을 때, 그 역시 멈췄다는 사실을.

그녀가 수치를 짊어진 이상, 그도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르웨냐는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에는 다른 뿌리가 있었다. 오르웨냐는 며칠 동안 말하지 못했다. 알른멀시가 죽어가며 내던 마지막 신음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다.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하프의 선율처럼.

그것은 어둠 속에서 위로를 갈구하는, 갓 태어난 하라니르 아이의 흐느낌과 닮아 있었다.

그 단상이 오르웨냐를 뒤흔들었다. 오르웨냐가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거둔 건, 그 존재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



## 빛

며칠이 지났다.

몇 주가 흘렀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그리고 또다시 낮과 밤이, 몇 달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모두 하가르의 발치에 자란 점박이 버섯처럼 둘러붙는 아이들

결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공부하고, 잔치를 벌이고, 달아났다가, 염탐하고, 꽃빛과 속삭임에 숨은 채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덩굴꽃처럼 자라났다. 밤마다 더 넓게 피어나고, 더 길게 뻗으며, 먼 미래를 향해 줄기와 싹을 내밀었다. 뿌릿길을 따라 아제로스라는 세계로 이어지는, 황금빛 여행을 잠시 몰래 다녀왔다. 그곳에 살고 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살아갈 삶, 맞서 싸워야 할 영광스러운 적들, 불러야 할 노래들, 하라니르 못지않게 심장을 뛰게 할 사랑들에 대해, 서로에게 백 번도 넘게 이야기했다.

불안은 금세 열어졌다. 적어도 오르웨냐는 그렇게 믿었다. 적어도 자신의 불안은 그랬다. 세상 전역과 통하는 창에서 흘러드는 노래가 오르웨냐를 끌어당겼고, 그 힘은 다른 모든 생각을 가려버렸다. 작은 하난조차도 언젠가 두 사람이 손을 떼어 놓은 적 있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갔다.

의식의 날은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하라니르가 성년에 이르는 날. 회고의 소굴에 들어가, 종족의 깊은 기억이 살아 숨 쉬는 그림을 처음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여신의 노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계가 시작되기 전 시간의 바구니 속에 여신이 하나하나 접어 두었던 각자의 운명을 눈부신 색채로 마주하는 날.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날이었다.

그 무렵 하가르의 오두막은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다! 여신은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가장 특별한 자손인 하라니르에게는 더욱 그랬다. 어떤 이가 어머니의 삶을 꿈꿨다면, 건강한 아이들의 울음이 평생의 노래가 될 터였다. 거대한 소굴의 벽에 초록 잎과 붉은 술이 흐르는 긴 나날이 그려졌다면, 손끝에 배인 약물의 얼룩과 함께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삶, 약초채집사의 정원이 이미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마라크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와 덩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난 이라도, 그만큼 섬세한 화관과 건갑과 인장을 벗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하가르는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자신은 뇌에 콧물만 가득 찬 배은망덕한 꼬마들 사이를 헤엄치는 꿈을 꿔다고. 그리고 바로 자신의 영리한 손으로 이 모든 하라니르를 길러냈다고.

의식은 여신이 어린 하라니르의 가장 깊은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단 하나의 순간이었다.

하난은 아직 어려 참여할 수 없었지만, 네이레이아와 카이세이, 오르웨냐는 기다림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알른하라의 고통과 상실을 기리기 위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처음 태어난 날처럼 맨발로 여신 앞에 서기

위해 강물에 발을 씻었다.

의식의 날 아침, 아마라크는 이슬 맺힌 풀밭을 가로질러 친구에게 달려왔다. 그는 몇 주 동안 준비해 온 하가르의 오두막으로 아이들이 모여들기 전, 오르웨냐를 다른 이들로부터 살짝 떼어냈다. 긴 초록 망토를 걸친 모습은 수줍으면서도 능름해 보였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너 때문에 지각하겠대!” 오르웨냐가 웃었다. 아침 요람의 불빛이 새로운 물감을 쏟은 듯, 대지를 적셨다.

“언제 그런 걸 신경 썼다고 그래? 난 오르웨냐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그리고 오르웨냐는 원래 시간 맞춰 오는 법이 없잖아. 근처에 안 보이던데? 어서 가야지, 늦으면 곤란하잖아.....”

“아, 그만해. 오늘만큼은 제시간에 가볼까 했어. 내 성격에 맞나 보게. 선물은 어디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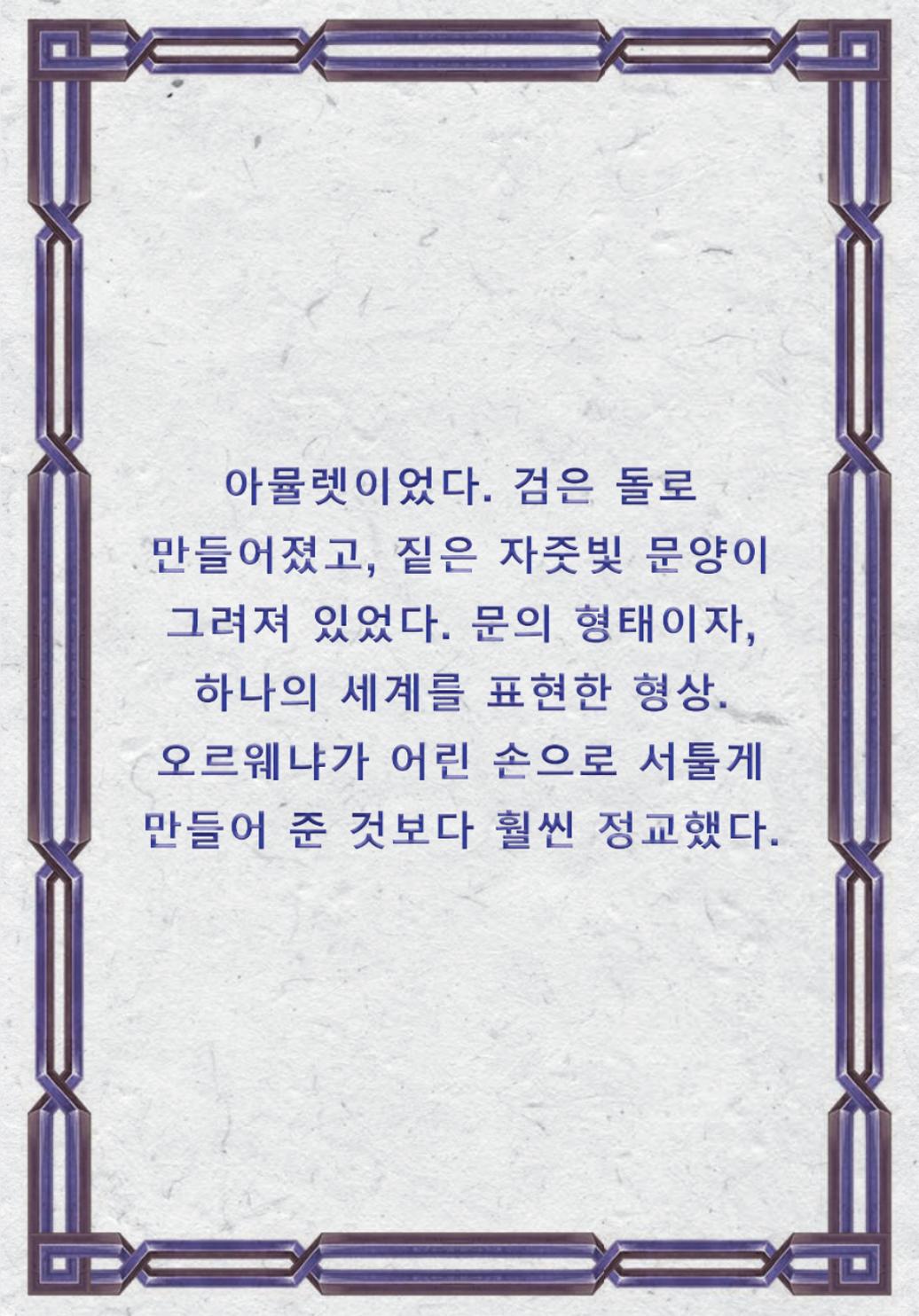
아마라크는 어머니의 손길이 아직 남아 있는, 뽀뽀한 새 망토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는 한순간에 그것을 오르웨냐의 목에 걸어 주고, 뺨에 입을 맞추고, 귓가에 속삭인 뒤, 붉어지는 얼굴을 들리기 전에 달아났다.

아물렛이었다. 검은 돌로 만들어졌고, 질은 자주빛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문의 형태이자, 하나의 세계를 표현한 형상. 오르웨냐가 어린 손으로 서툴게 만들어 준 것보다 훨씬 정교했다. 아마라크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가져온 안료로 돌 표면의 물결과 소용돌이를 따라 섬세하게 색을 얹어 두었다. 오르웨냐는 손가락으로 아물렛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내일이면, 그들은 영영 아이가 아니게 된다. 내일부터, 삶이 시작된다. 아마라크의 수줍은 속삭임이 귀에 남아 있었다.

*‘어딜 가든, 우리는 함께야.’*

오르웨냐는 친구들과 함께 회고의 소굴로 이어지는 거대한 석판 사이를 걸어 들어갔다. 안쪽에는 흙은 파낸 동굴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말린 꽃과 감귤 화환이 걸려 있었다. 하난은 한쪽 구석에 자랑스럽게 앉아, 몇 분마다 짧은 선율을 흥얼거렸다. 의식에 들어선 하라니르들의 정신을 붙들어 이 세계에 고정하는 역할이었다. 아주 신성한 책무였다.

각각의 하라니르는 커다랗고 고요한 동굴을 지나갔다. 벽에 빛나고 있는 형상들 위로 손을 얹을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난의 노래가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울림과, 자신에게 중요한 이들의 깊고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오르웨냐는 가슴속에서 울리는 여신의 노래를 들으려 애썼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선물이기를 바라며 귀를 기울였지만, 들려오는 것은 낮고 조용한 울림뿐이었다. 이윽고 벽에



아물렛이었다. 검은 돌로  
만들어졌고, 짙은 자줏빛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문의 형태이자,  
하나의 세계를 표현한 형상.  
오르웨냐가 어린 손으로 서툴게  
만들어 준 것보다 훨씬 정교했다.

기대 선 하가르의 잔잔한 코고는 소리가 그 울림에 섞여, 또 하나의 맞부딪히는 선울처럼 울렸다.

*'우리에게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 오르웨냐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썩어 문드러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가슴 깊이 가라앉았다. 아마라크는 이 모든 걸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미간은 퍼져 있었고, 눈은 무엇인가를 찾듯 움직였다. 오르웨냐는 그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무엇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너는 결코 썩지 않아, 오랜 친구여. 하지만 나는 그래. 나는. 다른 하라니르에게는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들이, 내게는 늘 손에 잡히지 않았어. 진작 알아야 했는데.'*

오르웨냐는 벽에서 자신의 그림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그림이 그녀를 찾아왔다. 벽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닫기도 전에, 오르웨냐의 손은 이미 주르아샤르 카사메의 안료 속 깊이 잠겨 있었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텔드랏실의 긴 뿌리들이, 그리고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더 위대한 나무들의 뿌리들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윤기가 흐르며, 두껍고, 살아 있는 뿌리에서 열린 노랑과 초록, 파랑이 어우러진 덩굴이 소용돌이치듯 뻗어 나왔다. 나무와 수액, 긴 세월로 이루어진 뱀들이었다. 그것들은 크고 단단한 팔처럼 오르웨냐를 들어 올렸다. 위로, 더 위로. 아이의 이마를 스치는 어머니의 긴 머리카락처럼. 공기는 초록빛으로 튀며 갈라졌고, 아직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순수한 힘이 그 안에 있었다.

그녀는 뿌리에 안긴 채 위로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위로. 아주 멀리. 불가능할 만큼 멀리..... 하지만 동굴 벽 위의 오르웨냐가, 그리고 그 벽을 그리고 있는 오르웨냐가 그 경계를 깨뜨릴 생각이라면 가능했다. 다른 장소로. 다른 색으로. 다른 빛으로. 머릿속의 노래는 단순했고, 완전했고, 진실했으며,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벽에 그렸다. 이끼처럼 부드럽고, 순했다. 심장은 드러나 있었지만 피는 솟지 않았고, 빠는 부러지지 않았다. 오르웨냐는 이끼였다. 오르웨냐는 대지였다. 오르웨냐는 빛이고 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하란다르에서 숨 쉬는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기쁨을 산파로 삼아 쏟아져 나왔다. 울음소리를 내는 감자겨비, 신음하며 자라는 거대한 뿌리들, 요람의 빛, 자라나 떨어지는 잎들, 버섯과 반딧불이, 죽어가는 이들의 단말마, 생명 그 자체의 울음과 그 순환, 열매와 버섯과 비구름. 하가르. 온전하게 살아있는 부모님. 아마라크.

그림 속에서, 노래 속에서, 깨어 있는 꿈에서, 오르웨냐는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베푸는 동안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들이 가져갈수록 그녀는 더 많이 가졌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뿌리와 뿌릿길은 오르웨냐를 들어 올려 멀리 데려가고 있었다.

지금도 오르웨냐가 떠돌았던 어떤 밤들에는, 여행자의 모닥불이 아니라 그 순간의 기억을 향해 얼어붙은 손을 내민다. 그 완전한 인식과 안전. 그 색과 소리. 잠시나마 그녀가 단순했고 섰했고, 빛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순간을.

그리고 곧 사라졌다.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그림뿐이었다.

그러나 황홀경에서 깨어나 그림 너머의 세계를 인식했을 때, 오르웨냐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두운 공기뿐이었다. 아마라크가 있던 자리에는 어둡고 폭력적인 그림만이 남아 있었다. 오르웨냐 자신은 차마 볼 수 없는 죽음과 고통으로 이루어진 세계였다.

아마라크는 사라지고 없었다.



## 열기

“어디 있어요?” 오르웨냐가 야생의 짐승처럼 하가르에게 소리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도 알지 않느냐, 아이야.” 하가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애가 발견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찾을 수 없어. 네가 그랬을 때처럼 말이다. 그리고 소리 좀 그만 질러라. 네 목소리 때문에 내 허리가 쑤서.” 그녀는 무거운 박을 꽃빛에 걸어 두고, 손끝으로 덥수룩한 눈썹을 문질렀다.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오르웨냐가 더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몇 주나 지났어요. 그보다 더 됐죠. 말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나한테서 감추는 거잖아요!”

“거참,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당연히 나는 안다. 너도 알고 있어. 화를 좀 가라앉히고 생각이란 걸 해봐라. 근데 넌 그러는 법이 없지. 그냥 주변을 마구 헤집으며 뭐든 하나쯤은 쓰러져서 스스로 드러나길 바랄 뿐이야. 아마라크에게는 녀석만의 길이 있어. 너한테 네 길이 있듯이 말이다.”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아마라크는 다른 녀석들처럼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 떠났다. 나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돌볼 거야. 그 아이들을 다 합쳐도 너보다는 덜 성가셔.”

“아니잖아요! 오두막을 다 돌아봤어요. 전부 다. 심지어는.....” 오르웨냐는 제때 말을 멈췄다. 돌만의 뿌릿길을 몰래 열곤 했던 텅 빈 덩굴. 하가르와 단둘이 있으면 실수하기 쉬웠다.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일탈만이 이제 오르웨냐에게 남은 아마라크의 전부였다. “새로 도제를 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르웨냐는 서둘러 말을 맺었다.

하가르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쓸 인내를 전부 써버렸다, 꼬마야. 네 헛소리를 받아줄 인내는 한 방울도 없어. 그렇다면 어디로 갔겠니? 아마라크가 어디에도 없다면, 어디 있겠니?”

오르웨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아뇨. *아니예요*. 그럴 리 없어요. 절대 그럴 녀석이 아니예요. 거긴 역겨워요. 끔찍하다고요.”

하가르는 자기 몫의 차를 따랐다. 오르웨냐의 잔에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다. 수업 진도가 더딜 때는 늘 차를 마시지 못했다. “그건 *실로* 큰 영광이란다, 아이야. 술카 아마라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균열로 들어갔다.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올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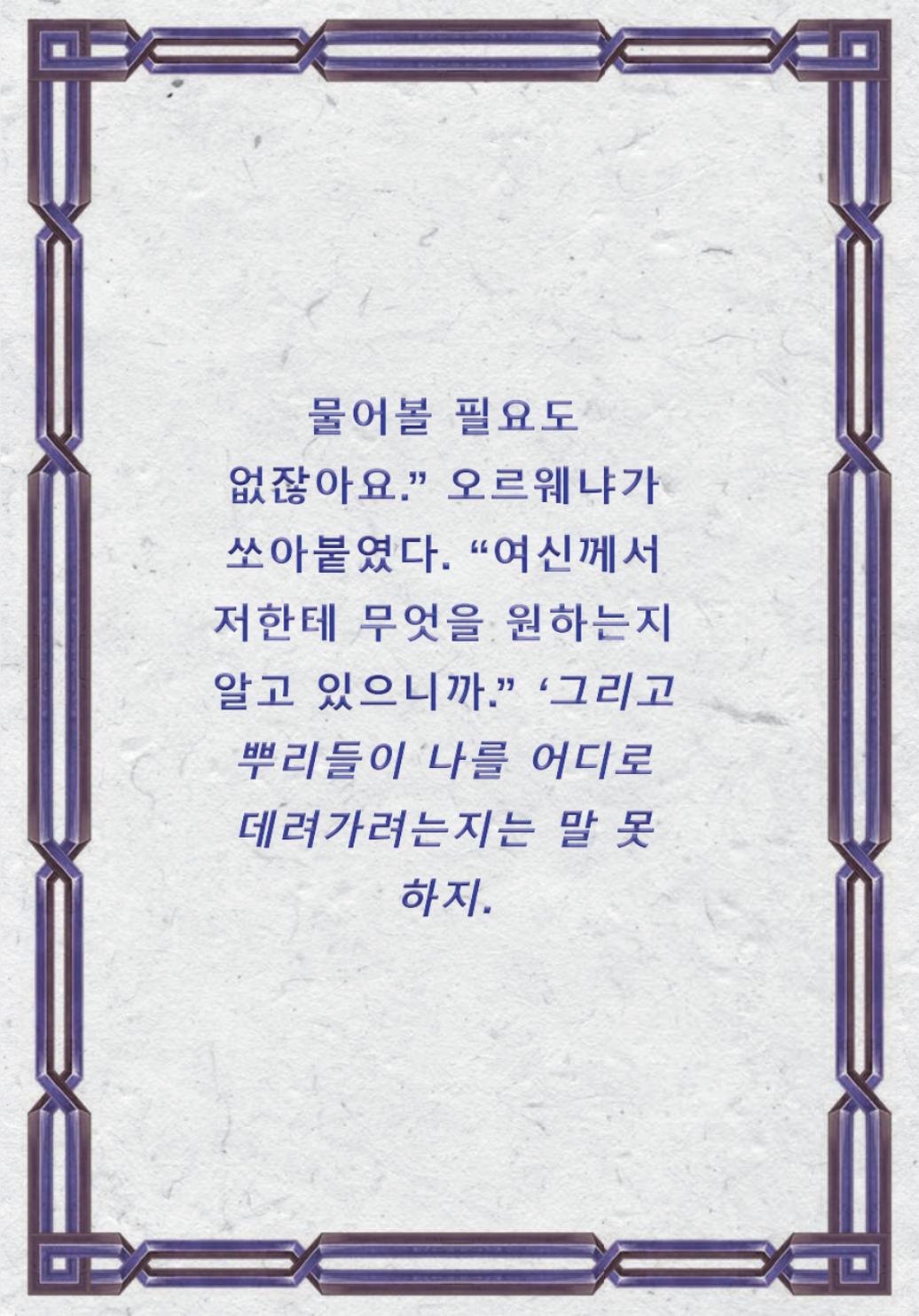
오르웨냐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마라크는 스스로를 영원히 훼손했고, 그녀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오르웨냐.” 하가르가 날카롭게 말했다. 창침이 그녀의 눈가를 감싸며 이질적인 머리카락처럼 맴돌았다. “이렇게 난리와 분노에 빠져 있으면서도, 네 그림이 *너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게 참 재밌구나. 내 벽에 구멍을 내고는 하루 종일 별 받은 아이처럼 뒹굴고 있지. *네 삶은? 네 자리는?* 어린 시절의 우정이 널 먹여 살리거나 입혀 주진 않아.”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오르웨냐가 쓰아붙였다. “여신께서 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깐.” *‘그리고 뿌리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는 말 못 하지.’* 오르웨냐가 속으로 생각했다. *‘충분히 위로 가면, 남은 곳은 하나뿐이니깐.’*

하가르는 고개를 기울여,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오르웨냐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흥미롭군.” 그녀는 차를 길게 한 모금을 마시고 얼굴을 찌푸리더니, 찌꺼기를 버렸다. “나도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지.”

오르웨냐는 물어봐야 했다는 걸 알았다. 하가르를 생각해야 했고, 자기 자신도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오르웨냐가  
쏘아붙였다. “여신께서  
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뿌리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는 말 못  
하지.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의자를 밀치고 문 쪽으로 돌진했다. 오르웨냐는 늘 무례했다.

“차아가라는 루타니를 찾아가거라.” 하가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사악한 물고기 두꺼비에게 얼굴이 반으로 찢기기 전에 말이다. 만발하는 정원에 있을 거고, 냄새로 알아볼 수 있을 거다. 그 늙은 잡초에게 내가 살이 아주 실하게 오른 벌레 세 그릇을 준다고 했다고 전해라. 놈이 널 죽이지 않는다면 말이지.” 하가르는 다시 오르웨냐를 훑어보았다. “네 그릇이다.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 어둠

만발하는 정원은 안개의 골짜기 가장자리에 자리한 곳이었다. 선홍색과 코발트, 에메랄드 덩굴이 뿔뿔이 얽힌 거대한 숲, 이끼로 뒤덮인 균류의 탑들이 솟아 있었다. 남쪽으로는 푸른빛과 자줏빛으로 끓어오르는 균열이 보일 것만 같았다.

차아가의 거처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오르웨냐를 바닥에 쓰러뜨릴 뻔했다. 하라니르는 꽃과 포자 속에서 살아 향기에 낯설지 않았지만, 이건 달랐다. 너무나 복잡하고 층이 깊었으며, 눈부시도록 달콤했다. 매콤하면서도 섬세했고, 기억보다도 더 달콤했다.

“차아가?” 오르웨냐가 색채가 입을 벌린 듯한 동굴 안으로 불렀다.

사방에서 못마땅한 낮은 울림이 들려왔다.

“거기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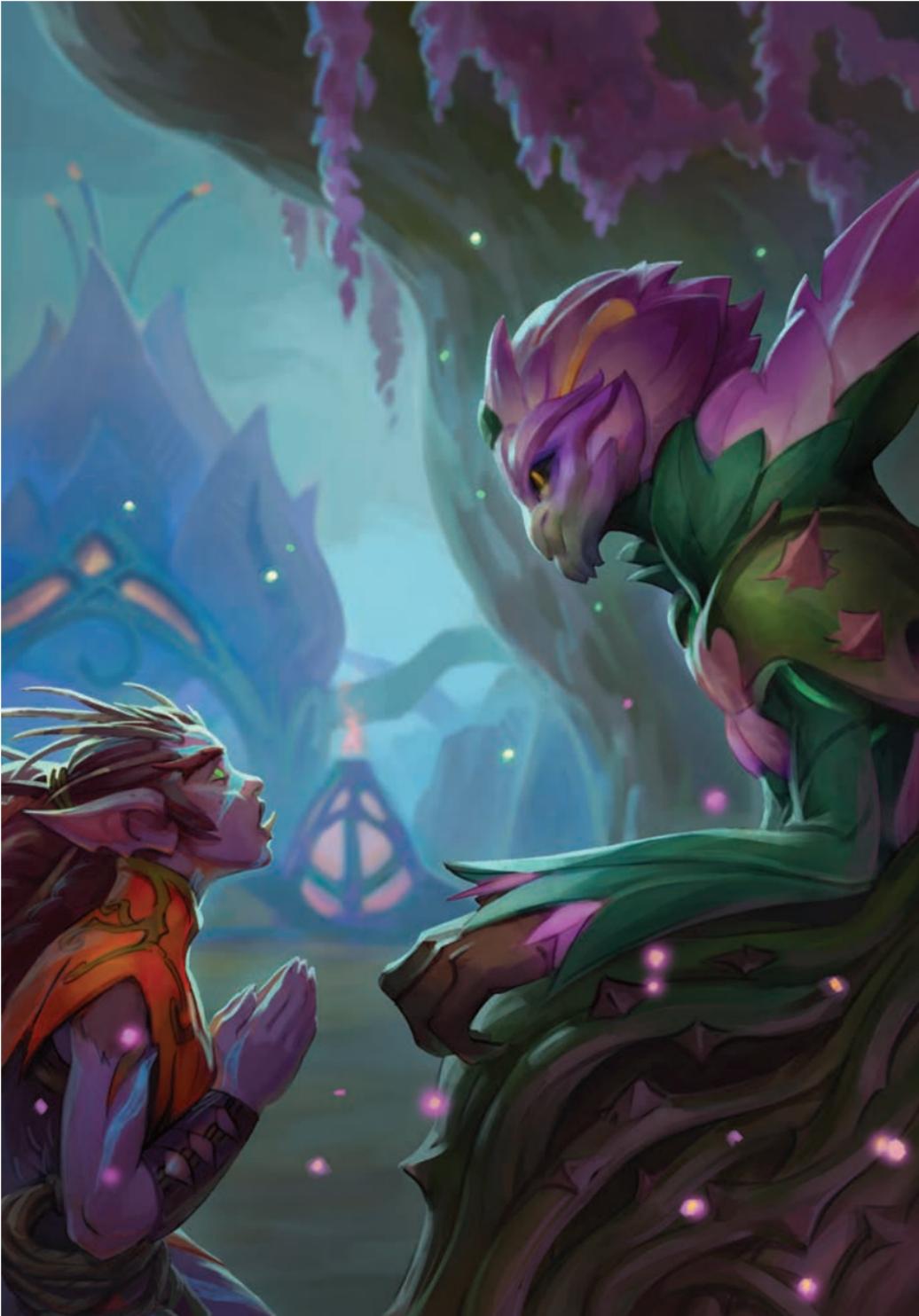
울림은 분개심에서 경교로 바뀌었다.

“하가르가 벌레를 준대!”

반딧불이로 들끓는 어둠 속, 동굴의 뒤쪽 벽이 움직였다. 그것은 오르웨냐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꽃과 잎의 덩어리가 눈을 떴다. 머리 위에는 덩굴과 가지 채찍이 더듬이처럼 풀려나왔다. 루타니는 꽃잎으로 된 한쪽 손으로 흠을 긁으며, 낮게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아.’ 오르웨냐는 생각했다. ‘아. 벌레는 흠을 고르게 한다. 더 좋게, 더 비옥하게 만든다. 하가르는 그에게 잔치를 제안한 셈이었다.’

오르웨냐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마라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스스로를 훼손하고 홀로 균열로 들어갔다는 것,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 균열의 노래에 정신을 빼앗긴다면 자신은 누구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거라는 것까지. 이렇게 가까이 사는 그러면, 자신이 친구를 따라갈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차아가는 땅을 굽으며 낮게 울었다. “별레는 생명의 값이다. 하라니르가 균열을 원한다면, 그 하라니르는 죽음을 원하는 것이다. 나는 죽음을 주지 않는다.”

오르웨냐의 부탁은 울음으로 바뀌었다. “방법이 있을 거야. 하가르가 별레 네 그릇을 준다고 했어. *살이 오른 것들로*. 제발, 나..... 약속했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던 말이야.”

차아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뿌리는 있어야 할 곳에 내려라.”

*분노를 멈추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알 텐데.*

오르웨냐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먼지를 털어 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줄 어른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오르웨냐는 심장 위에 손을 얹었다. 안에 쌓인 슬픔이 얼굴로 흘러나오게 두었다. 밧줄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자, 모든 것이 풀려나왔다.

루타니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다.

하가르는 틀렸다. 오르웨냐는 동굴 벽화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백 번도 넘게, 천 번도, 백만 번도. 다만 하가르에게 묻지 않았을 뿐이었다. 아마라크 없이 보낸 수많은 주 동안, 그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텔드랏실에게 물었으며, 여신에게도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하나였다. 태어나서 단 한 순간도 끊긴 적 없는, 그 익숙한 노래와 같은 박자로 울려오는 대답.

오르웨냐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신의 노래를, 그녀의 단순한 입으로 낼 수 있는 한 서투르게. 차아가를 위해서. 아마라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부모와 하가르를 위해서, 오래전 자신이 죽었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만큼 부서져 있던 그 불쌍한 괴물을 위해서도. 그녀의 노래에는 가사가 없었다. 여신의 노래에도 가사가 없었으니까.

눈을 떴을 때, 거대한 루타니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가 닿을 수 있을 만큼 낮게. 꽃이 핀 손바닥 위에는 진줏빛 씨앗 두 알이 놓여 있었다.

“고통이 크구나.”

차아가는 다른 손을 귀로 가져갔다가, 바스락거리는 옆구리로 내렸다.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렸다.

“소리를 막는 곳에 심어라. 멈추지는 않는다. 늦춘다.”

방법은 정말 있었다.



## 물

오르웨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가없는 괴물 중 하나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 혈떡임이 손 위에서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고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가르 장로가 수백 번이나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다. 꽃빛 아래서 들려온 이야기들로도, 회고의 소굴에 그려진 그림들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들었다. 다른 무엇을 들을 때만큼은. 그림에도 오르웨나는 알른의 균열을 넓고 외로운 장소로만 여겼다. 황혼과 그림자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어쩌다 한 번, 일 년에 한 번일지도, 그보다 더 드물게, 형언할 수 없는 비극적인 야수 하나가 저주받은 땅을 비틀거리며 지나가다 용감한 솔카에게 사냥당해 쓰러지는 곳.

오르웨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균열은 가득 차 있었다.

오르웨나는 금지된 거대한 틈의 경계에 다가가기 전부터 비명을 들었다.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소리. 살아 있는 어떤 것도 낼 수 없는 소리였다. 그저 들을 수 있는 상처였다.

그녀는 서둘러 차아가의 씨앗을 귀에 밀어 넣었다. 그 비명들, 그 비명들은 멀리서도 그녀의 자아 가장자리를 톱질하듯 갉아먹었다. 오르웨나라는 존재의 개념을, 생각하는 존재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감각을 탐욕스럽게 노리고 있었다. 씨앗은 물이 귀에서 빠져나오듯 가볍게 흔들렸다. 하루 종일 헤엄치고 낚시한 뒤 강에서 나왔을 때처럼. 이어서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 그리고 침묵이라는 축복이 찾아왔다.

오르웨나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마도 스스로를 영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모든 걸 그럴듯하게 따져 보고, 자라다 만 생울타리 같은 존재를 설득해 도움까지 받아냈다는 데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솔카가 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단하고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라니르가 균열을 원한다면, 그 하라니르는 죽음을 원하는 것이다.'

오르웨냐는 길고 낮선 꽃잎들이 귀에서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자리가 주름진 꽃잎들, 수술과 암술이 공기를 더듬으며 자라나 이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색으로 번져 나갔다. 그것들이 소리를 막아 주었다. 귀를 봉하고, 가장 깊은 자아를 지켜 주었다. 그럼에도 여신의 오래되고 달콤한 노래는 여전히 안에서 들렸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오르웨냐는 그것이 술카들의 방식만큼이나 충분히 통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면, 그들이 루타니와 맹약을 맺고 귀의 씨앗을 수천 단위로 재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사실도 잊은 채.

가시 송곳니로 뒤덮인 발톱이 피부를 가르는 첫 일격은, 칼처럼 정확하게 오르웨냐의 머리석음을 눈부시게 드러냈다. 오르웨냐는 발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비명도, 악의적으로 빛나는 얼굴이 덜컥이며 움직일 때 반투명한 수십 개의 턱뼈가 서로 갈려 자기 목의 연약한 살을 베어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균열의 얇은 가장자리를 따라 그녀를 노리며 움직일 때의 숨소리도, 존재해선 안 될 발에 돌이 부서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알른멀시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그것이 덮쳐와 물어뜯고 굼어대며, 체액과 그보다 더 끈적한 것들을 얼굴에 토해 내고, 자신의 잔해로 오르웨냐를 삼키려 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오르웨냐는 어깨를 으스러뜨리며 파고드는 이빨을 느꼈다. 비명을 질렀지만 그것마저 들리지 않았다. 들린 것은 느리고, 슬프고, 부서진 울음 같은 여신의 노래뿐이었다. 고통이 밀려들어 그녀를 휩쓸었다. 알른멀시가 먼저 죽이지 않는다면, 이 노래가 곧 그녀를 광기로 몰아넣을 터였다. 그것은 안개 속에서 싸웠던 그 괴물보다 훨씬 컸다. 수년간 악몽 속에서 그녀를 따라다니던 그것보다도 훨씬 컸다. 엄청난 무게가 오르웨냐를 땅에 찍어 눌렀고, 목덜미에 닿는 숨결은 피부를 부풀게 했다. 여신의 뒤틀린 노래가 그녀의 비명을 덮어 주고 있었으니, 차라리 다행이었다.

그리고 무게와 악취가 사라졌다. 오르웨냐는 허둥지둥 뒤로 물러나 무기를 더듬어 잡았다. 숨을 몰아쉬며, 너털너털한 채로. 보이는 것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발광하는 살점뿐이었다. 들리는 것은 여전히 뒤틀린 여신의 노래뿐이었다. 노래는 계속해서 울렸다.

'어딜 가든, 우리는 함께야.'

아마라크는 형언할 수 없는 괴물의 등 위에 있었다. 오르웨냐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라크는 수척하면서도 강해졌고, 엄숙했고, 나이 들어 보였다. 그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그 역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르웨냐는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말 없는 분노로 괴물에게 소리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의 검이 알른멸시의 목을 갈랐지만, 숲속 덤불을 그 유해로 물들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건 뒤틀린 노래뿐이었다. 견디기 힘든 순간이 지나고, 또 하나가 지나갔다.

고통이 자신을 집어삼키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마라크의 눈이었다.



## 녹색

오르웨냐가 눈을 떴을 때, 여신의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리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진동하며, 파고들어 있던 고통을 밀어내려는 듯했다.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아이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닌 모습으로. 다시는 아이가 될 수 없는 모습으로. 거칠게 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르웨냐의 꽃들은 시들어 떨어졌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안개의 골짜기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의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마라크가 그녀를 자신의 야영지로 데려온 것이었다. 필요할 때 오가며 쓸 수 있는 소박한 피난처였다. 오르웨냐는 씩씩하게 생각했다. 예전의 아마라크라면, 머리에서 꽃이 돌아난 그녀를 보고 웃고 떠들었을 텐데. 자신보다 먼저 천막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 아마라크는 다시는 웃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떤 소리였지?” 아마라크가 조용히 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 네가 말해줘야 해. 내게 위로를 빚졌잖아.”

오르웨냐는 눈물을 삼켰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야. 아직 희미하게라도 들을 수 있어. 난 알아. 넌 늘 강했잖아. 해 봐.”

“내가 해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해 봐!”

‘어딜 가든, 우리는 함께야.’

아마라크는 형언할 수 없는  
괴물의 등 위에 있었다.

오르웨냐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라크는  
수척하면서도 강해졌고,  
엄숙했고, 나이 들어 보였다.  
그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그  
역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르웨냐는 들을 수  
없었다.

“해 볼 게 없어. 기억 속에서 그 자리를 더듬으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바람뿐이야. 어둠 속에 죽은 가지들뿐이야.”

오르웨냐는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이처럼 굴지 않겠다고. 그가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해 보겠다고.

“여신의 노래는 별빛의 색처럼 들려. 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고. 너희 어머니가 바구니를 엮으며 흥얼거리는 소리 같아. 바구니를 채우는 과일, 그리고 그 과일이 자라나는 소리까지 함께 들려. 울음 같기도 하고 웃음 같기도 하고, 자라나는 소리 같기도 해. 그리고 네 손이 내 손안에 있을 때의 감각이야. 자. 위로가 돼?”

“아니, 오르웨냐. 아니야.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어.”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예전처럼 함께하자. 네가 너 자신에게 한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숲을 지나 세상으로 가자. 길을 찾아가서, 우리 몫의 삶을 찾으면 돼.”

아마라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많은 걸 알아 버렸어.”

“넌 아무것도 알지 못해. 짐작만 할 뿐이지. 내 운명이 무엇이었는지 묻지도 않았잖아. 솔직히 말하면 무례한 행동이야.”

“나는 내가 무엇인지 알아, 오르웨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안개 속의 그날 이후로, 아니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발걸음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어. 너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그 시간이 끝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야.”

“이젠 묻지도 않는구나. 늘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나는 올라갈 거야, 아마라크. 위로. 뿌리들이 나를 위로 실어 나르려 해. 여신은 내가 올라가길 원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올라가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아제로스야, 아마라크. 아제로스! 같이 가자! 거기라면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그게 잘못된 거라면, 오르웨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겁쟁이 대장님. 의식은 틀린 적 없어. 노래가 흐르면, 우리는 춤을 춰. 그게 우리 모두의 방식이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오르웨냐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아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넌 날 배신했어.” 오르웨냐가 쏘아붙였다. “마음만 먹으면 널 미워할 수도 있어, 아마라크.”

“해 봐.” 그가 씩씩하게 답했다. 거의 웃음 같았고, 거의 예전 같았다.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했어!” 오르웨냐가 절망에 차 으르렁댔다. “우린 하나의 그릇이었어. 그런데 넌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벽에 내던져 깨뜨렸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나도 봐서 알아, 아마라크. *아니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어!*”

“난 거짓말한 적 없어, 오르웨냐.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할 수 없어. 나 자신에게 한 것을 빼면.”

“어딜 가든, 우리는 함께니까?”

아마라크는 잠깐, 정말 마지막으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알른덜시는 잊어, 이 바보야.” 오르웨냐는 손등으로 코를 문질렀다. 마지막으로, 숨김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난 널 경멸해. 나를. 넌 스스로를 훼손했어. 예전이 그립지 않아? 여신이 그립지 않아?*”

안개 속에서 아마라크의 어머니가 분노로 번뜩였다. “그걸 한 번만 더 물으면, 널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난 단 한 번도 네게 부모가 그립지 않냐고 묻지 않았어, 오르웨냐. 넌 나에게 그걸 물을 자격이 없어.”

“그럼 *내가* 그립진 않아?” 오르웨냐가 속삭였다.

아마라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속보다 중요한 것도 있어.”

“또 거짓말! 우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삶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함께 자라고, 지혜를 얻고, 늙어 가며,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보다?”

“*이제 와서* 모두가 해 온 대로 살고 싶다는 거야? *너답지 않게*, 오르웨냐?”

오르웨냐는 아이처럼 손가락을 비틀었다. 다시 산산이 부서진 얼굴로. “넌 내 전부였어. 평생 같은 노래를 가슴속에서 들으며 살았는데, 두 번 다시는 그러지 못하겠지. 우리의 선율은 다시는 큰 노래 속에서 울리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넌 말도 안 했어. 그냥 사라졌잖아. 작별의 노래조차 불러 주지 않았어.”

“작별보다 중요한 것도 있는 법이야.”

“그럼 말해 줘. 말해 봐, 아마라크. 네 맹세와 명예보다 중요한 게 뭐야?”

아마라크가 끝없는 안개를 향해 울부짖었다. 단전에서 올라와 목구멍까지



찢어지는 고통의 포효였다. “너. 너 말이야, 오르웨냐! 내 어머니, 아버지, 하가르, 하난, 그리고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는 하라니르 전부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깨지 못할 서약은 없고, 명예는 아무도 먹여 살리지 못해. 특히 죽은 자는. 난 그걸 봤어. 살아 있는 꿈으로 보았어. 너희 모두가 찢겨 죽는 걸, 하란다르가 피 흘리는 걸 봤다. 근데 내가 멈출 수 있었어. 전부를 포기하기만 하면 됐다고!”

메아리만 남은 침묵 속에서, 오르웨냐의 대답은 단호했다.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아마라크.”

“나도 널 용서할 수 없어, 오르웨냐. 태양 아래에서 모험이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건 기쁜 소식이야. 여신이 준 위대한 사명도. 그게 네 혈관을 밝히는 게 보이니까. 하지만 내 자리는 그림자에 있어.”

“내가 뭘 용서받아야 하는데? 난 아무 말 없이 스스로를 훼손하지도 않았고, 서약을 깨뜨리지도 않았어.” 그러나 말엔 힘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미 졌다는 걸, 오르웨냐는 내심 알고 있었다.

아마라크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오르웨냐는 거칠게 뿌리쳤다.

아마라크의 얼굴이 쓰게 굳었다. “넌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오랜 친구여. 오만하게도 네 판단을 여신의 판단보다 앞세웠지. 내가 너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어. 네가 한 번 나를 구했으니, 혼자 설 수 없다고 여긴 거야. 그날, 이곳에서, 안개 속에서, 그건 네 승리였을 뿐 내겐 무언가를 앗아갔어. 그리고 넌 내 수치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지. 오직 네 승리만 생각했어. 자기 자신만 바라봤지.”

“난 다시는 널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어. 약속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난 그 약속을 깨지 않았어. 나도 환영을 봤고, 나도 벽에 그림을 그렸어.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넌 떠났잖아.”

“무엇을 봤지?”

“그분의 안으로 들어갔어. 그분이 되어 움직였어. 내가 곧 그분이었어. 순수함을 빼앗긴 알른하라. 자기 자신을 빼앗긴 여신. 내가 그 환영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그 악몽이 끝난다면, 아마라크, 그분에게도 끝이 올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길이 저 위에 있을지도 몰라. 아제로스에. 태양이 비추는 곳에. 그렇지 않고서야, 왜 여신이 자신의 고통을 내게 꿈으로 보여 줬겠어?”

“네가 길을 찾길 바라, 오르웨냐. 진심으로. 노래가 언제나 널 따르기를.”

“너. 너 말이야, 오르웨냐!  
내 어머니, 아버지, 하가르,  
하난, 그리고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는 하라니르 전부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깨지  
못할 서약은 없고, 명예는 아무도  
먹여 살리지 못해. 특히 죽은  
자는. 난 그걸 봤어. 살아 있는  
꿈으로 보았어. 너희 모두가 찢겨  
죽는 걸, 하란다르가 피 흘리는  
걸 봤다. 근데 내가 멈출 수  
있었어. 전부를 포기하기만 하면  
됐다고!”

“하지만 넌 함께하지 않겠지.”

“그래. 나는 함께하지 않아.”

오르웨냐는 여신의 노래 속에서 그의 고통과 슬픔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갈등을, 환영이 그를 사로잡아 미래의 목을 놓아주지 않는 방식을. 그 길을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결코 풀어 주지 않겠다는 집요함을. 그녀는 그를 가엾게 여겼다. 그를 애도했다. 시간이 흐른 뒤라면, 어떤 말을 했든 결국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여신의 노래 속에서 그녀의 고통을 들을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오르웨냐의 심장을, 그녀의 꿈을, 이유를, 분노를, 죄책감을, 외로움을, 절망을. 그리고 그를 잃은 상실을.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청춘의 잔해 한가운데에서. 각자의 머릿속에 갇힌 채,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말 한마디 없이 분노하고, 비난하고, 변명하면서. 손잡이 하나만 남은 바구니처럼. 그마저도 마모되어 곧 끊어질 듯한 바구니.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겉쟁이 대장님.” 오르웨냐가 속삭였다. “날 떠나지 마.”

하지만 그는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 꽃

오르웨냐는 강해졌고, 단단해졌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시간이 넘쳐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난조차 성년이 되었다. 그들 모두가 그랬다. 오르웨냐와 아मार크의 옛 친구들 모두가. 다섯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여섯이면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그릇은, 깨지는 방식이 있다. 다시는 이어 붙일 수 없는 형태로. 오르웨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자신의 여정이 아मार크를 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신 그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인지. 그들이 무엇을 믿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을 더 갈망하고 있는지, 오르웨냐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삶을 이어갈 준비를 하며(위로, 위로, 뿌리들이 들어 올린다), 자신의 소지품과 기억들, 젊고 새로웠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오르웨냐는 무엇보다 단 하나를 붙들고 있었다. 차가운 지상의 밤을 건디게 해 줄, 하란다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중한 것.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 여신이 보내는 환영보다도 더 소중한 것.

아마라크가 그녀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의 망토 아래에서 오래된 부적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아이의 손으로 그린 문양이 남은, 덜그럭거리는 오래된 돌.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세계를 떠나던 날, 아마라크가 만들어 준 더 정교한 부적 또한 오르웨냐의 망토 아래에 걸려 있었다. 심장 옆에. 그의 심장 옆에.

그리고 앞으로 닥칠 모든 일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리라.

## 작가 소개

**Catherynne M. Valente** 는 과학소설, 판타지, 호러 장르에서 40여 권이 넘는 작품을 발표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다. 대표작으로는 *Space Opera*, *Deathless*, *Radiance*, *Fairyland* 시리즈가 있다. 휴고상, 네블러상, 로커스상, 람다 문학상, 스테전상, 스크라이브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현재 메인주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무시무시할 만큼 영리한 동물로 이루어진 작은 군단과 생활하고 있다.